

## 광주시, '준 3단계'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

PC방 등 집합제한으로 완화  
밀집 높은 직업훈련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6개 업종 추가

광주시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로 묶여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PC방과 게임장, 오락실은 집합제한 시설로 완화했다.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어 방역 대응단계를 20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지역감염 확진자는 총 123명으로 하루 평균 9.5명이 발생했고, 지난 8일에는 준 3단계 조치 이후 가장 많은 17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을 방역 중점 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를 연장한다.

방역 중점 관리시설에는 유흥주점, 노래연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후 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정부 지정 고위험군 11개 업종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집단체육활동, 목욕탕, 사우나 등 광주시 자체 지정 9개 업종 등 총 20개 업종이 포함됐다.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 기존에 행정명령을 내렸던 14개 업종에 직업훈련

기관,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을 추가했다.

해당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 간격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집합금지 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 오락실은 그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 시설로 완화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우리 시민들은 지난 2주 동안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그럼에도 지역감염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금 코로나19 감염고리를 끊어

내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준 3단계 조치 연장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 “추석 고향방문 자제해 주세요”...해남군, 온라인 성묘 등 지원

해남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명절 고향방문 자제를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지 못하는 항우들의 아쉬움을 달래는 명절맞이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남도광역추모공원에서는 추석명절기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과 남도광역추모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성묘를 지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봉안당 등 안장기수 1342기로 연중무휴 운영되고 있는 추모공원은 전국 각지에서 1일 평균 2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도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남도광역추모공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21일부터 25일까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안치사진을 신청하면 28일부터 고인을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고인의 사진이나 안치사진을 업로드 후

명절맞이 지원 서비스 실시

별초 어려운 출향인 대행도

“철저한 방역 태세 구축”

차례상 음식 차리기 또는 헌화대를 선택하고 추모의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온라인 성묘를 할 수 있다. 28일부터는 남도광역추모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고인을 검색하면 안치사진을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

이다. 또 연고가 없어 별초가 어려운 출향인을 대상으로 별초를 대행함으로써 별초 부담도 덜고, 이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별초 대행 서비스는 15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별초는 25일까지 순차적으로 해남군산립조합에서 대행한다.

별초대행 금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1기당 6만원인 기존에서 40% 할인된 4만원을 적용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부터 청정해남을 지키기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지원하는 분야별 시책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철저한 방역 태세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총파업’ 광주·전남 대형병원 전공의 복귀

전남대·조선대·기독병원 정상 운영...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대책 요구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광주와 전남지역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했다.

9일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기독병원에 따르면 각 병원 전공의들이 자체 투표 등을 진행한 뒤 업무에 복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남대병원과 기독병원은 이날 오전 7시부터 복귀해 정상업무에 돌입했다.

조선대병원 전공의들은 오전 10시에 복귀하겠다고 병원 측에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조선대·기독병원은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미뤄졌던 수술 등도 차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남대전공의 등은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마련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집단행동

에 나설수 있다는 뜻을 병원 측 등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총파업에 참여했던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고 있어 병원 업무도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조선대·기독병원 등 광주와 전남지역 전공의 500여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확대 등에 반대하며 지난달 2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정부와 의협간의 합의문이 발표되고 전공의들로 구성된 젊은의사비대위가 파업 중단을 지난 7일 선언함에 따라 광주보훈·국립나주·순천성가톨릭로병원은 업무에 복귀했다.

전남대·조선대·광주기독병원 전공의들의 의대생 구제대책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했고 이날 회의 등을 통해 전체 복귀를 결정했다.

김민정기자

**녹차수도보성**

## 제8회 보성세계차엑스포

온택트

2020. 9. 17.(목) ~ 20.(일) 보성군 일원

대한민국티블렌딩 대회	2020. 09. 17. 10:00
류지광·추가열의 차밭힐링콘서트	2020. 09. 17. 15:00
세계차품평대회	2020. 09. 18. 10:00
보성차골든벨	2020. 09. 18. ~ 20.
보성 U 페스티벌(UCC 공모)	2020. 08. 03. ~ 31.
보성차 50% 특별기획판매전	2020. 09. 17. ~ 20.

www.bsworldteaexpo.kr

# BS 삼총사



**녹차몬**



**꼬막몬**



**키위몬**

## 보성 특산물 캐릭터

주최 주관 보성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문의: 062)974-9103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eateaf>